

장애인과 일터

Vol.334

2023 February
KEAD Monthly Magazine

토닥토닥, 당신 곁에



장애인과 일터
KEAD Monthly Magazine



2023 February Vol. 334

토닥토닥, 당신 곁에

매서운 추위도 막바지인 2월입니다.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 '입춘(立春)'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선 새순이 고개를 내밀려 합니다.

꽃을 피우고 새날을 살아가려 오늘도 힘내는 서로에게
'토닥토닥, 다 잘될 거야'라고, 가만히 어깨를 두드려 주세요.



공감, 만나다

12 행복한 내일

"장애인 파트너에게 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권순미 스타벅스코리아 미아사거리역점장
(청각장애)

16 함께하는 일터

장애인의 전기 기술자로 성장하는 곳,
행복드림복지회

20 우리는 KEAD

일상을 가꿀 나만의 꽃과 향을 찾다
경기지역본부 김동진 대리,
송유정·이윤호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주임

24 KEAD 포커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권리

28 세계는 지금

카타르,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세계 1위



공감, 두드리다

03 공감 테마

토닥토닥, 당신 곁에

04 생각 더하기

청각장애인 100명에게 소리를 선물합니다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하는 밴드 '이충버스'

06 공감 히스타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온 마음으로 토닥토닥'

08 KEAD 사전

근로지원인·작업지도원·직무지도원

10 일터 트렌드

동물병원의 간호사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은?



공감, 함께하다

32 트렌드 보고서

드라마 1.5배속으로 보기,
메시지보다 중요한 욕망의 실현

34 배리어프리 여행

인천 차이나타운 미식 여행

36 고민톡 상담특

"회사가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38 #공감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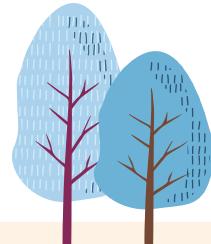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39 KEAD 툰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시각장애인 편

41 KEAD 뉴스

42 KEAD SNS



토닥토닥, 당신 곁에

언제나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

‘신바람 박사’로 유명했던 고(故) 황수관 박사가 TV 강연에서 소개한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83세의 아버지와 53세의 아들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날아든 까치

한 마리를 보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까치네요.” 잠시 후에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창가에 저게 뭐냐?” 아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까치예요.” 아버지가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아들은 “방금 까치라고 했잖아요?”라며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통명스러운 태도에 상처받은 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공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3세의 아버지가 쓴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는데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세 살 먹은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대답했다.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스물세 번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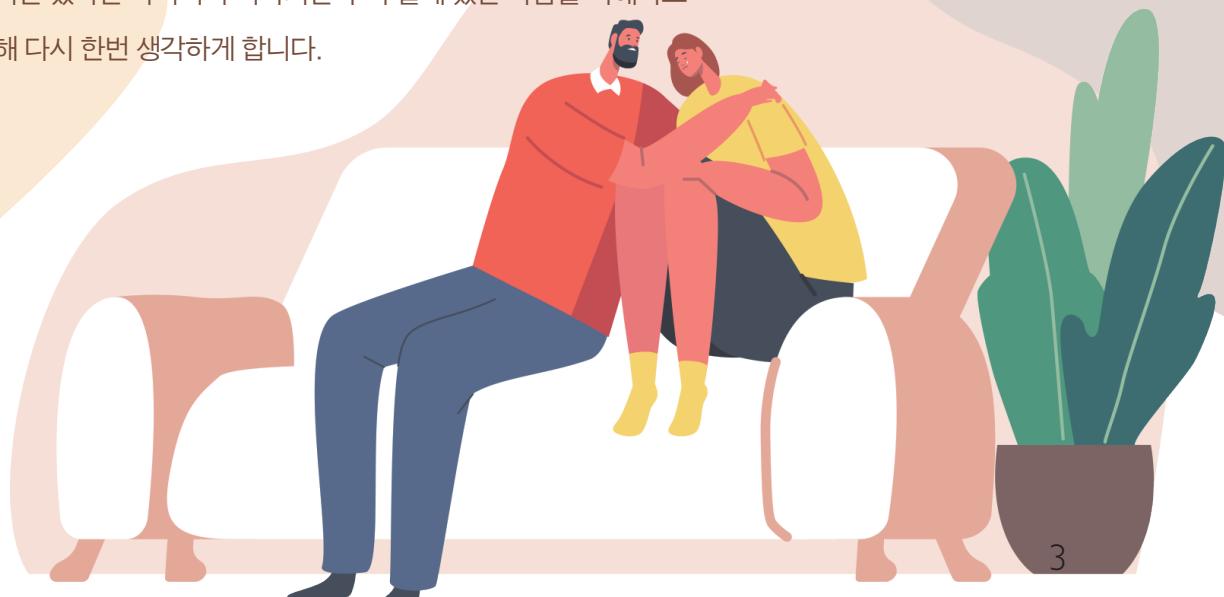
물었다. 나는 스물세 번을 대답하면서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

반복되는 질문에 짜증이 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질문이 즐겁기만 했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방식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청각장애인 100명에게 소리를 선물합니다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하는 밴드 ‘이충버스’

글 김형규 밴드 ‘이충버스’ 프로듀서, 모던K실용음악학원 대표, 알비더블유 이사



2022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이충버스 정기 기부 콘서트 / 사진. 이충버스

밴드 이충버스는 청각장애 아동의 인공와우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밴드다. 정기 공연을 열고 그 수익금으로 수술비를 마련한다. 나는 이충버스의 프로듀서다. 내 이름은 알비더블유의 음악 프로듀서로 먼저 알려졌고, 알비더블유는 마마무, 원어스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이자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K팝 아티스트의 음악을 만들고 세계적 성취를 지원하는 것은 더없이 신나고 뿌듯한 일이지만, 그 일보다 현재 내 삶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은 밴드 이충버스 활동이다.

밴드 이충버스의 멤버는 바이올린 제니윤, 보컬 이선호, 건반 이상인, 드럼 박성룡, 베이스 박동혁, 기타 연태희, 퍼커션 이소운, 디렉터 권석홍, 박동준이다. 사실 음원 수익은 많지 않아서 새로운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모던K실용음악학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형편이다. 대신 4개월에 한 번씩 여는 콘서트의 티켓 판매 수익으로 수술비를 마련한다.

100명의 수술비를 지원하면 해체하는 것이 이충버스의 목표다. 2017년에 결성된 후 지금까지 총 14명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기기 교체 비용을 지원한 두 명 포함이다. 나의 생전에는 10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고 놓담

을 섞어 말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 같은 큰손 후원자를 만나 목표를 단번에 채우는 상상을 한다. 그 이후에 계속 할 더 즐거운 활동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면서.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장애인 지원을 시작한 것은 회사에 아이돌 연습생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연습생들과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장애인의 삶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선물하고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밴드 활동을 구상했다.

인공와우 수술을 모두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수술 후 적응과 훈련을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다. 수술비 지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수술 후 삶이 달라졌다는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내 삶이 위로받는다고 느낀다. 우리 콘서트 무대에 올라 수술 경험을 나눠주는 아이와 가족들의 마음도 풍클하다. 누군가는 청각장애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장애인을 향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그렇게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이충버스가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나는 이충버스의 운전사, 멤버들은 안내원이자 엔진이며 바퀴다. 정기 기부 콘서트에 함께하는 객원 아티스트들도 있다. 지난 연말에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연 콘서트에는 2021년에도 함께했던 더원이 다시 찾아주었다. 수입이 안 되는 일인데도 기꺼이 참여하는 아티스트들 덕에 이충버스가 계속 달릴 수 있다.

이충버스가 기분 좋은 여행을 떠나는 관광버스가 됐으면 한다. 이충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다. 다음 콘서트에는 더 많은 관객이 찾아오시면 좋겠다. 공연 소식은 이충버스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다. 우리의 따뜻한 음악으로 위로받고, 타인을 응원함으로써 자신도 힘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으면 한다.



이충버스는 4개월마다 기부 콘서트를 열어 청각장애 아동 인공와우 수술비를 마련한다. / 사진. 이충버스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온 마음으로 토닥토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서로 도와 가며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각자 할 일과 책임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돋는 문화란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 수 있다는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 일의 무게를 나누지 못할 때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 위로받고 힘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리 편집부 / 그림 CANEPAZZO

2016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입사 후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부는 주로 공단 유관기관과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기관의 직원들, 공무원들과 연락할 일이 많습니다. 외부 사람과 연락할 일이 많은 분은 쉽게 공감하실 겁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연락이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직원 기숙사 관리를 맡고 있는 제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 이후에 연락받을 때도 많습니다. 최근 후 쉬고 있는데 샤워기가 고장 났다면 전화한 분도 있었습니다. 씻고 싶은데 샤워기가 작동하지 않아 화가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시간에는 저도 해결해드릴 방법이 없어 난감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친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업 관련 문의가 너무 많아 힘들 때 매뉴얼을 만들어 게시판에 올려 주신 선배가 생각납니다.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데 그 자료를 올린 후로 문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일을 덜게 된 것도 좋았지만, 제 고생을 아주고 마음 써주신 선배의 배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태광 과장
본부 운영지원부

“

토닥토닥,
혼자가 아니에요



김서림 대리

보조공학센터

“

토닥토닥,
이거 먹고 힘내요

2021년 12월에 보조공학센터가 개소할 때 합류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업무는 재미있고 보람도 큽니다. 하지만 센터가 처음 개소했을 때는 일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곳이라 모든 문서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일이 처음인데다 공단 내 이 일을 경험한 분도 없어서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볼 곳이 없었습니다. 고민만 하다 다른 지사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무턱대고 전화하면서도 알려주실까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선뜻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알 것 같아 위로하는 말씀도 빼놓지 않으셨지요. 바쁘다고 티 내지 않아도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무 살 차이 나는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고 힘든 이야기도 묵묵히 들어주시는 저희 센터의 이상은 과장님께 특히 감사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몸이 아파 병가를 냈는데 정말 많은 분이 염려해 주고 비타민이며 죽이며 알뜰하게 챙겨 주셔서 감동받은 이야기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요”라고 적힌 메시지 카드를 보며 웃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납니다.

장애인을 위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구인 수요에 맞춘 훈련, 취업 전 준비 과정,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훈련까지 다양한 장애 유형의 고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인천맞춤훈련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만 1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청에서 추천받았으며 3년 전에 처음 지사를 찾아오신 60대 후반 장애인 고객을 최근에 다시 상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만이 가득 한 목소리로 일자리를 찾아달라며 호통을 치십니다. 묵묵히 공감하며 한참을 들어드렸더니 목소리에 화가 누그러지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며 면접에서 탈락한 이야기, 계약직과 무직을 오가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덤덤히 들려주셨습니다. 마침 지자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어 도전해보자고 권해드리고 건강도챙기시라고 당부 드렸습니다. 상담이 끝날 때쯤에는 고맙다며 밝은 표정을 되찾으셨지요. 저는 그분께 일자리를 제공해드린 것도 아니고, “그저 들어드릴게요”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분 삶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드린 것 같아 저까지 덩달아 가벼워진 하루였습니다.



이병우 차장

인천지사 인천맞춤훈련센터

“

그저 들어드릴게요,
토닥토닥



근로지원인·작업지도원·직무지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해 나가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인적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근로지원인, 작업지도원, 직무지도원은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나
그 취지와 성격이 각기 다르다.

글 편집부

근로지원인은 부수적 업무 수행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 ·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증장애인의 업무에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지원인이 하는 일은 교육이나 회의 내용 받아 적기,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 낭독하기 등 다양하다. 인건비는 최저시급으로 책정되며 수어통역, 첨역교정, 속기 등 전문적인 업무는 최저시급보다 높게 책정된다.

근로지원인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지원인은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라는 것 이 특징이다. 근로지원인이 핵심 업무를 대신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와 별개의 장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업지도원은 사업체 소속 근로자

작업지도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서 고용관리비용이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지도원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작업지도원은 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공단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단은 작업지도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작업지도원이 중증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수행하는 경우 월 14만 원을 지급한다. 작업지도원 1명이 중증장애인 5명까지 지도할 수 있어 최대 70만 원의 고용관리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직무지도원은 취업, 현장훈련, 이후까지 동행

직무지도원이 하는 일은 작업지도원과 비슷하다. 작업지도원이 사업주의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이라면, 직무지도원은 직업훈련에 초점을 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 참여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직장 적응을 지도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일반 취업훈련과 다른 것은 구직자가 사업체에 먼저 배치된다는 점이다. 구직자는 6일 이내의 사전훈련을 거쳐 사업체에 배치되며 기본 3주에서 7주,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현장훈련에 참여한다. 직무지도원은 이 훈련과정에 함께하며 취업 이후에도 훈련생의 직장 적응을 지원한다. 직무지도원 1명이 훈련생 5명까지 지도할 수 있는데 장애 유형과 특성, 사업체의 사정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공단은 훈련생 지원금, 사업주 보조금, 직무지도원 수당 등을 지급한다.

□ 장애인 인적지원 제도

| | 근로지원인 | 작업지도원 | 직무지도원 |
|--------|-----------------------------|---------------------------------------|--------------------------------|
| 역할 |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보조 | 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지도와 직장적응 지원 | 지원고용 훈련생 및 지원고용을 통한 취업자의 직무지도 |
| 신분상 지위 | 사업 수행기관 근로자 | 사업체 소속 근로자 | 사업체 소속 근로자 공단 또는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



동물병원의 간호사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관련 산업의 성장이 더욱 빨라지고 직종은 다양해지며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에는 동물 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 공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처음 치러졌다.

글 편집부

동물병원 보조 인력의 전문화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동물병원에도 간호사라고 할 수 있는 직종이 생겼다. 2019년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동물보건사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거나 보조하는 업무로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건사에게 간호사와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동물보건사의 자격을 법으로 규정해 직업 전문성을 인정하고 강화한다는 법의 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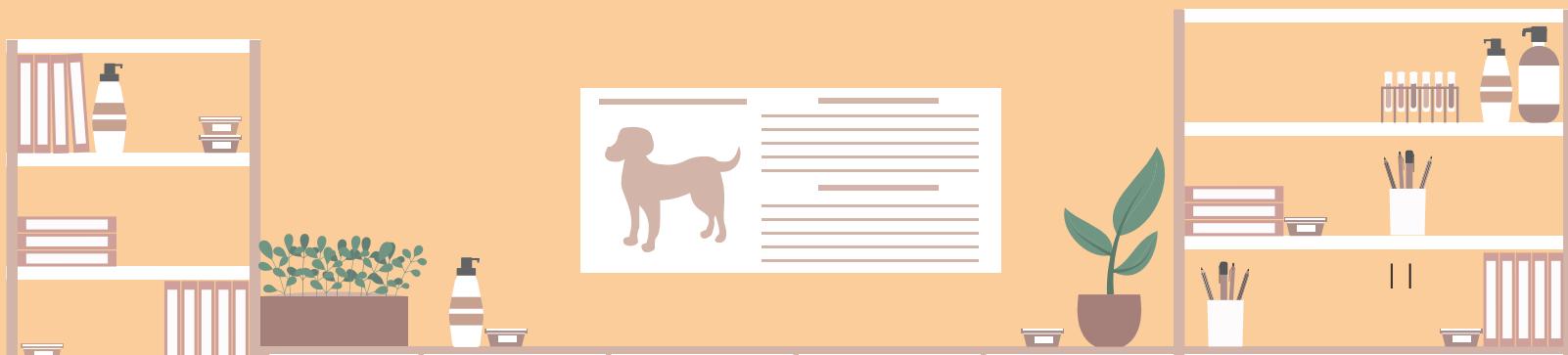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2022년 2월에 치러졌다. 제2회 시험은 오는 2월 2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1회 시험에는 총 3,352명이 응시해 약 76퍼센트인 2,544명이 합격했다. 시험과목은 동물보건학 세 과목(기초, 예방, 임상)과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까지 네 과목이다. 객관식으로 총 200문항이 출제되고,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농식품부 인증받은 교육기관 선택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반려동물 관련 직종에 드문 국가 공인시험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응시 조건은 전문대 이상의 동물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다. 이때 전문대와 평생교육기관은 농식품부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법 개정 전에 동물병원에서 일한 보조 인력은 전문대 동물 간호 관련학과 졸업생이거나 비전공자였다. 이들은 특례대상자로 동물보건사 응시 자격을 부여받았다. 농식품부 평가인증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그대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비전공자는 학력에 따라 다르다. 전문대 이상 학력이면 1년 이상, 고교 졸업 학력이면 3년 이상 동물 간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특례대상자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동물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려동물 의료 수요는 계속 늘고 서비스의 질은 동물병원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는 동물병원이 더 많아질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전문대의 반려동물 관련학과들은 간호·보건·관리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곳이 많아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인접 분야로 폭넓게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공감, 만나다 | 행복한 내일



“장애인 파트너에게 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권순미 스타벅스코리아 미아사거리역점장 (청각장애)

2011년 스타벅스코리아에 입사해서 수퍼바이저, 부점장, 점장으로 차근차근 승진했다.

승진할 때마다 ‘장애인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권순미 점장은 청각장애인으로서 고객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서비스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견을 깨고
서비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글 편집부 / 사진 김덕창

*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며, 실제 근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스타벅스 미아사거리역점에서 근무하는 권순미 점장



반갑습니다. 스타벅스에서의 경력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1년에 스타벅스코리아의 장애인 정규직 채용 1기로 입사했습니다. 자주 방문하던 집 근처 매장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2013년에 수퍼바이저, 2015년에 부점장, 2018년에 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미아사거리역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점장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타벅스는 장애가 있든 없든 똑같이 승진 기회를 부여합니다. 점장은 서류평가, 면접 같은 절차를 거쳐 승진하게 되고요. 한 매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최고 관리자이니 책임감과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점장으로 일할 때 후배 파트너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그들의 역량을 키워주려고 애썼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성실히 노력하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태도도 좋게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매장의 ‘베스트 스마일’로 선정되신 적도 있어요. 고객 응대 원칙이 있나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스몰톡(small talk)’을 시도하는 편이에요. 누구나 웃는 모습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고객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고객 한 분 한 분마다 이 매장에서 진심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각장애인 고객은 제가 직접 수어로 주문받아 고객에게 편안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베스트 스마일’로 뽑을 만큼 환한 웃음



공감, 만나다 | 행복한 내일



다른 근로자의 성장을 돋는 것이 권순미 점장의 꿈이다.



매장에서의 일과와 주요 업무도 궁금합니다. 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매장이 목표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루, 한 주 단위 할 일을 계획해서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점장이라고 사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파트너들과 함께 음료 제조, 고객 응대 등 서비스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획합니다. 매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매장을 경험하셨는데 미아사거리역점의 특성이 있나요? 운영의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미아사거리역점은 복합적인 상권에 있습니다. 주변에 유흥가도 있고 쇼핑몰, 영화관, 예식장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상권이에요. 역 앞에 있어서 고객의 연령대나 직업이 다양하고요. 다양한 고객의 취향과 기대를 파악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회사의 서비스 매뉴얼을 근무자들과 정확히 공유하고, 파트너들을 교육하는 데도 더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점장님 입사 이후 스타벅스의 장애인 근로자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스타벅스는 장애인 고용뿐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사 후에는 장애인 인사관리 담당 파트너와 수시로 면담해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장애인 파트너의 역량 강화 계기가 되는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도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승진 기회도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어 중간 관리자(수퍼바이저 이상) 직급의 파트너도 49명에 달합니다.

점장님의 성취가 다른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매장의 장애인 바리스타나 그분들과 같이 일하는 관리자들이 가끔 상담을 요청합니다. 장애인 파트너가 앞이 막막하다거나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장애인 파트너의 승진을 지원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고민하던 점장님도 있었고요. 점장님과 파트너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그 파트너가 승진했다고 고맙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일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겉보기에 청각장애인이라는 티가 나지 않다 보니 고객께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불렀는데 못 들어서 제가 고객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요청하곤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고객과 눈을 마주치고 자신 있게 응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중요하고, 그만큼 노력하셨다는 뜻이겠죠?

바리스타로 입사해 고객을 응대해보니 억양, 어투, 어휘 하나가 아무리 사소한 차이라도 정말 좋게 들리기도, 나쁘게 들리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 말을 녹음해서 몇 번이고 듣고 발음과 어투를 좋게 들리게 하려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회사의 배려도 큰 힘이 됐습니다. 장애인 파트너도 노력하면 비장애인 파트너와 똑같이 성장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것,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회사의 가장 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은 무엇인가요?

리더로서 파트너들의 성장을 돋고 싶어요. 제가 장애인이라 승진은 어렵겠다고 생각할 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많은 걸 알려준 점장님이 있었는데 그분 덕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급변해도 자신을 향한 믿음을 더 지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노력은 언젠가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성실함은 큰 무기니까요.



장애인의 전기 기술자로 성장하는 곳, 행복드림복지회

행복드림복지회는 전체 구성원의 70퍼센트가 장애인과 고령자인 사회적기업이다.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재활지원을 위해 2017년에 설립돼 전기 부품 제조와 전기공사 서비스로 연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건실한 회사로 성장했다. 장애인이 어떻게 전기공사를 하느냐는 편견에 맞서 거둔 성과다. 지난해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으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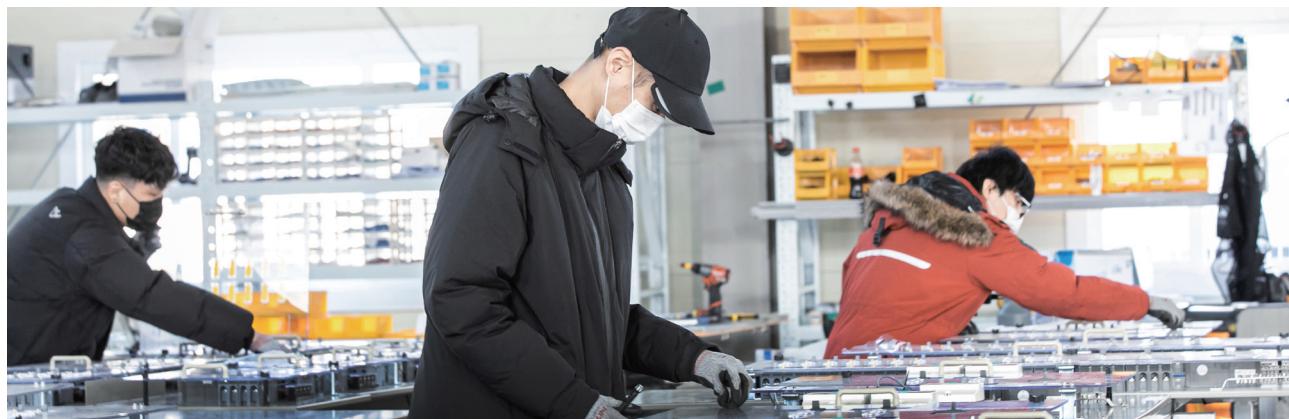
글 편집부 / 사진 최병준

셔틀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한파가 여전히 매섭지만,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마음만은 춥지 않다. 집 앞으로 찾아온 셔틀버스에 올라 먼저 탄 동료와 인사를 나누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는 곳으로 갈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즐겁다. 통근버스 덕에 집과 회사를 편하게 오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 여유로워진 만큼 부족했던 공부 시간을 늘렸다. 올해는 꼭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요량이다.

셔틀버스는 직원들의 동네를 두루 거쳐 회사에 도착했다. 전북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행복드림복지회 사무실. 그 옆에는 두리 E.N.G의 사업장이 있다. 행복드림복지회는 장애인 권리옹호와 재활지원을 활동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고, 두리 E.N.G는 행복드림복지회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또 다른 법인이다.

행복드림복지회는 배전반, 분전반, CCTV 등을 제조하고 전기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배전반과 분전반은 아파트, 빌딩 등 모든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기 시설이다. 정전되면 열어서 퓨즈가 내려갔는지 확인하는 곳, 주로 두꺼비집이라고 불리는 장치가 분전반이고 분전반으로 전기를 나눠주는 장치가 배전반이다. 행복드림복지회는 생산시설에서 이 장치들을 직접 제조하고 전국 각지의 관급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행복드림복지회는 배전반, 분전반 등을 제조하고 전기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

행복드림복지회의 출발은 퇴직자들의 고민이었다. 공직자로 퇴직한 사람들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나눌 방안을 찾아 전기공사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장애인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의 설립목적이다.

전체 임직원 26명 중 장애인이 절반이고 중증장애인은 10명이다. 중증장애인은 생산, 서비스, 사무 등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 생산직은 재료를 자르고 부착하고 연결하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배워 일한다. 처음 입사할 때는 단순한 작업도 어려워하지만, 차츰 능숙해져 실수 없이 맡은 일을 해내고 더 어려운 공정으로 옮겨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장애인 직원들이 직장생활에 적응하고, 직무역량을 키워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 행복드림복지회의 가



행복드림복지회는 직원과 함께 성장하고 직원의 자부심이 되는 기업이다.

장 큰 자랑거리다.

행복드림복지회는 설립 초기부터 직원 기술교육에 과감히 투자했다. 강사를 초빙해 전문기관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원에 다니는 직원들에게는 비용을 지원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취득 수당을 공기업보다 높게 책정해 직원들이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직원 대부분이 전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게 됐고 지금도 더 어려운 자격시험에 도전한다.

직원들이 성장하면서 회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설립 2년 만에 약 4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익산산업단지의 부지를 확보해 생산시설을 늘렸다. 작년에는 인천공항 분전반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23년으로 이월된 인천공항 매출을 제외하고도 2022년에만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설립 이듬해인 2018년도 매출액 16억 원의 세 배다. 설립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성장세다.

행복드림복지회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행복드림복지회에 전기공사를 맡기려는 고객은 드물었다. 회사소개서를 들고 찾아갔다가 “장애인아 어떻게 전기공사를 하느냐”는 편견 어린 냉대만 받고 돌아선 적도 많았다. **돌파구는 기술력이었다. 직원 중 기술자가 많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기회를 잡으면 공사부터 AS까지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렇게 실적을 쌓으면서 행복드림복지회라면 믿고 맡겨도 된다는 평판을 얻었다.

연구 역량도 행복드림복지회의 자산이다. 설립 초기부터 특허 출원에 힘써 ‘AI 기능을 구현한 수배전반 화재감시 및 진화시스템’ 외 6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장을 새로 영입하고 연구소 설립을 준비 중이다. 2023년에는 제대로 규모를 갖춘 연구소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함께 일하는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봉사와 기부도 꾸준히 해왔다. 기부는 첫해 500만 원으로 시작해 3,00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중증장애인 직원들이 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다 함께 익산 미륵사지를 찾아 환경미화를 하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날은 모든 직원이 손꼽아 기다린다. 행복드림복지회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말을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들며 구성원의 자부심이 됐다. 수치로 나타나는 성취 뿐만 아니라 함께 추구하는 가치가 더 큰 자부심이어서 오늘도 직원들은 행복하게 일터로 향한다.



조연용 대표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드림복지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임직원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해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행복드림복지회는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재활사업에 최선을 다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박미숙 사무처장(지체장애)

“2018년 9월에 사무처 보조원으로 입사했습니다. 행복드림복지회는 다른 회사나 기관보다 승진이 빨라서 저도 벌써 사무처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채택돼 수행되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모두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 한번 입사하면 끝까지 다니고 싶은 회사로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회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다 보니 익산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이라는 중책도 맡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양정민 5급 사무직(지체장애)

“기술부 소속으로 사무 보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생소했고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나씩 배우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점점 성장하고 있어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을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배우고 싶은 게 많아지고 자기 계발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2월 말에 열리는 사무자동화산업 기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 준비 중입니다. 전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도면 설계 같은 전문적인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일상을 가꿀 나만의 꽃과 향을 찾다

경기지역본부 김동진 대리, 송유정·이윤호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주임

경기지역본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담당하는 송유정·이윤호 상담원 주임과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김동진 대리가 향기로운 공방 ‘아틀리에 라벨라’를 찾았다.
세 사람은 아름다운 동화와 기분 좋은 꿈이 떠오르는 메리고라운드 용기에
직접 고른 향과 꽃을 채워 향초를 만들었다.

글 편집부 / 사진 김창제



경기지역본부의 세 사람이 향초 만들기 일일 체험수업에 참여했다. 왼쪽부터 김동진 대리, 이윤호 상담원 주임, 송유정 상담원 주임



나만의 향초를 위한 향을 신중하게 골랐다.

걷고 싶은 날, 향기 가득한 공방으로

1월인데 오랜만에 포근한 날씨였다. 세 사람은 걸어서 20분 거리의 공방까지 차를 타는 대신 산책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기분 좋게 걸어 도착한 곳은 동수원 나혜석거리에 위치한 작은 공방. 소이캔들과 향수, 비누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일일 체험수업도 진행하는 곳이다.

세 사람이 만들기로 한 ‘메리고라운드 플라워 캔들’은 이 공방의 대표 상품이다. 회전목마의 형태와 비슷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향초 표면을 꽃잎으로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은 만드는 과정이 적힌 안내문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송유정 상담원 주임과 이윤호 상담원 주임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이런 수업도 포함할 수 있을까 상상했다. 장애인 취업 성공패키지는 구직자에게 상담과 취업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담당자로서 참여자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소개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어느덧 습관이 됐구나 싶다. 김동진 대리는 이렇게 모여 체험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훈련을 진행하지 못한 날이 많아서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사업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기분 좋은 기억을 소환하는 향 고르기

대두에서 추출하는 소이왁스는 파라핀보다 유해성이 적고 향과 배합하기 좋아 향초 재료로 널리 쓰인다. 용기 하나에 넣을 왁스의 양은 대략 170g. 왁스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12g의 향료를 넣고 잘 섞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다.

좋은 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세 사람은 탁자에 놓인 15가지의 향을 차례대로 맡아 봤다. 김동진 대리는 은은하게 퍼지는 라일락 향을 골랐다. 꽃장식과도 어울릴 것 같다는 이유였다. 송유정 상담원 주임은 난초 향을 골랐다. 베이비파우더가 떠오르는 은은한 향이면서 색다른 산뜻함이 느껴진다고 했다. 이윤호 상담원 주임은 세븐 후르츠(7 Fruits)라는 이름의 향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이름대로 여러 과일을 섞어 만든, 이국적인 매력도 물씬 풍기는 향이다.

다음은 하나씩 나눠준 메리고라운드 용기의 바닥에 나무심지를 고정하는 작업이었다. 나무심지는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향초를 태울 때 타닥타닥 타들어 가는 소리가 나서 분위기를 더하는 매력으로 더욱 사랑받는 재료다. 세 사람은 강사의 설명에 따라 심지탭을 용기 바닥에 고정한 후 적당한 높이로 심지를 자르는 작업을 섬세하게 수행했다.



각자의 취향대로 향과 꽃을 골라 만든 향초 완성품

어떻게 보아도 꽃이라 예쁘다

꽃장식은 왁스가 어느 정도 굳은 후부터 완전히 굳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에 빠르게 완료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 어떤 모양으로 장식할지 미리 구상해 두는 것이 좋다. 세 사람은 종이에 용기 모양대로 원을 그리고 그 위에 꽃과 잎을 배열하기 시작했다.

“투머치(too much) 한가요?”

과감하게 꽃잎을 자르고 이리저리 배치해 보던 송유정 상담원 주임은 “놓다 보니 욕심이 나서 과도해진 것 같다”라며 웃었다. 김동진 대리도 “왠지 이것저것 올리고 싶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조용히 집중하던 이윤호 상담원 주임은 꽤 마음에 드



는 모양을 완성했고, 다른 두 사람에게서 ‘금손’이라고 부러움을 샀다.

드디어 적당히 온도가 오른 왁스에 향을 섞어 용기에 부을 때가 됐다. 향초 만들기는 왁스에 향을 섞을 때나 굳은 왁스에 장식물을 올릴 때나 최적의 분량과 온도를 맞추는 것이 완성도를 좌우한다. 세 사람은 미니 저울로 왁스와 향의 양을 정확히 계량해 배합하고 왁스 온도가 60~65°C로 떨어질 때를 기다려 용기에 부었다.

투명한 유리 용기에 담긴 왁스는 노르스름한 색을 띤다. 액체였던 왁스가 굳으면서 미색으로 변해 갈 때를 기다려 직접 고른 꽃과 잎, 가지들을 올렸다. 핀셋을 잡은 손이 조금 떨렸지만 하나하나 신중히 옮기자 마법처럼 근사한 모양이 완성됐다. 굳은 왁스에 꽃을 장식하면 어떤 모양이든 다 예쁘게 나온다는 강사의 설명은 과장이 아니었다.

내 손으로 이렇게 근사한 향초를 만들었다는 만족감으로 세 사람의 안면에 미소가 가득 번졌다. 디자인 감각이 부족하거나 손재주가 없다고 걱정하기보다는 부딪혀 체험해 보면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다.

🎙 체험 소감 한마디



공단과 향초는 닮은꼴

김동진 대리

“내 손으로 캔들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향기로운 캔들과 우리 공단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공단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일하는 것을 보면 사람냄새 나는 곳이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스스로 노력해서 세상을 밝히는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과정도 힐링입니다

송유정 상담원 주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도 향을 다루는 직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체험 수업을 활용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신에게 잘 맞는지 알아보시도록 안내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과정에 포함된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향초를 만드는 과정도 힐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향초가 될게요!

이윤호 상담원 주임

“선생님이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향초를 만들면서 우리 공단도 구직자의 방을 밝히는 향초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사업도 새해가 되면 조금씩 바뀌고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구직자들께 잘 안내해서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권리

최근 재판부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쉽게 쓴 판결문이 화제가 됐다.
쉬운 말을 고르고 삽화를 곁들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지 리드(easy read, 쉬운 정보)' 방식으로 작성한 첫 판결문이었다.
이 판결문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법률 용어를 어렵게 느끼는
비장애인에게도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글 편집부



청구를 기각한다 → 안타깝지만 졌습니다

지난 12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이지 리드(easy read)’ 방식으로 쓴 첫 번째 판결문을 내놨다. 이지 리드란 구어체의 짧은 문장과 그림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를 말한다. 법원이 어려운 한자 어,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실생활에 사용되는 언어로 판결문을 구성했다는 뜻이다. 판결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장에 팔호를 하고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판결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림도 삽입했다.



위 그림³⁾ 중 원쪽 그림과 같은 상황이 원고가 겪은 상황이라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작성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의 삽화와 설명 일부 / 사진.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 나온 소송은 청각장애인 A씨가 서울 강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불합격 취소소송이었다. 원고는 중증 청각장애인들이 충분한 면접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채용절차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강동구청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다. 평등원칙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청각장애인인 원고와 다른 지원자들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원고가 원쪽 그림처럼 높이가 같은 받침대에 올랐지만 세 사람 모두 경기를 보는 데 문제가 없는 높이라는 판단이었다.

장애인의 탄원서와 UN장애인권리협약

쉽게 쓴 판결문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원고는 판결이 나기 전인 10월 22일에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고, 이에 재판부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화답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UN장애인권리협약을 언급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는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 수어, 이지리드, 오디오 및 비디오 등 의사소통 보강 수단을 개발하라고 권고한다.

쉬운 판결문이 나온 배경에는 재판장의 경험과 평소 고민도 있었다. 이 재판을 맡은 강우찬 판사는 2022년 8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심의에 한국 사법부 대표로 참석했다. 심의는 세계 각국이 UN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검토한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9월에 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장애인 차별 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해 점자 문서 및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법률 용어 등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이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처음으로 작성한 쉬운 판결문이 장애인 사법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 1월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의무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이지 리드(easy read)’가 필요한 곳은 법원뿐만이 아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처럼 복잡한 글을 읽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쉬운 글쓰기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현재 이지 리드는 장애계와 공공 부문에서 조금씩 시도되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시 영등포구청 지원으로 서울시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 ‘알다’(<http://www.easy-read.or.kr>)가 설립됐다. ‘알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읽기 쉬운 자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자료를 제작한다. 지난 연말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10종을 제작했다. 장애인복지, 주택, 청년, 돌봄지원, 공공보험 등 5개 분야 서울시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돈 관리, 직장생활, 금융안전, 집안일, 약 먹기 등 5개 주제로 일상정보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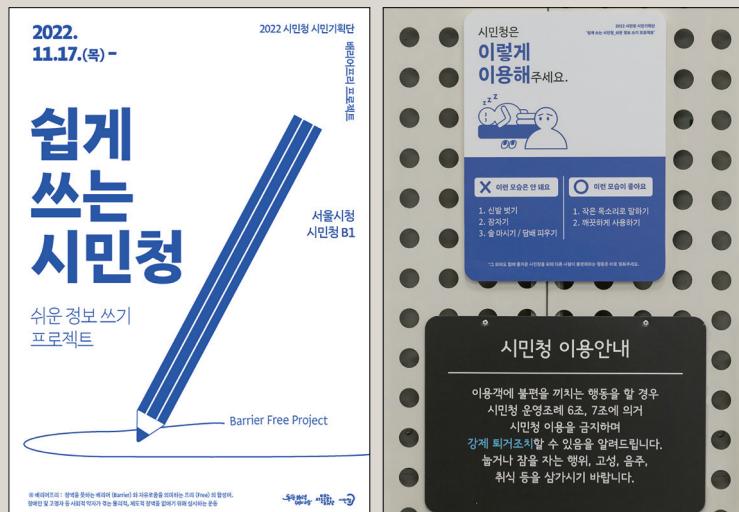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읽기 쉬운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지 리드 제작방법과 사례를 보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알기 쉬운 자료 개발 순서, 방법, 당사자 검증 방법, 점검표 등의 내용을 정리한 <알기 쉬운 자료 제작 안내서>와 발달장애인의 직업 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정보서>를 발간했다. 2022년에는 직장생활 안전, 건강, 경제를 주제로 알기 쉬운 자료를 개발해 배포했다. 또한, 책자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과 운동법을 다룬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제작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쉬운 글'이 필요한 모두를 위해

지난 연말에는 서울시 시민기획단이 쉬운 정보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지 리드를 보급하는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청 시민청 공간에 쉬운 글로 작성한 안내문을 부착했다. 시민청 지하1층 담벼락미디어와 소리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에도 쉬운 설명을 함께 게시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작품이나 유물을 소개하는 글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느꼈던 시민이라면 쉬운 글쓰기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서울행정법원이 처음 시도한 이지 리드 판결문도 완벽하지는 않다. 4쪽은 판결 내용을 쉽게 요약하고 있지만 8쪽은 기존 판결문 형식 그대로 쓰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의 염밀성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글쓰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장애인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쉬운 글쓰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청 시민청에 쉬운 글쓰기를 시도한 시민기획단의 프로젝트 / 사진. 시민청 블로그



카타르,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세계 1위

카타르는 2022 FIFA 월드컵을 개최하며 장애인 복지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월드컵 당시에는 장애인 무료 경기 관람권을 1만 장이나 발행하고
시각장애인 경기 관람실을 별도 제작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화제가 됐다.
그 전에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부문 조사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글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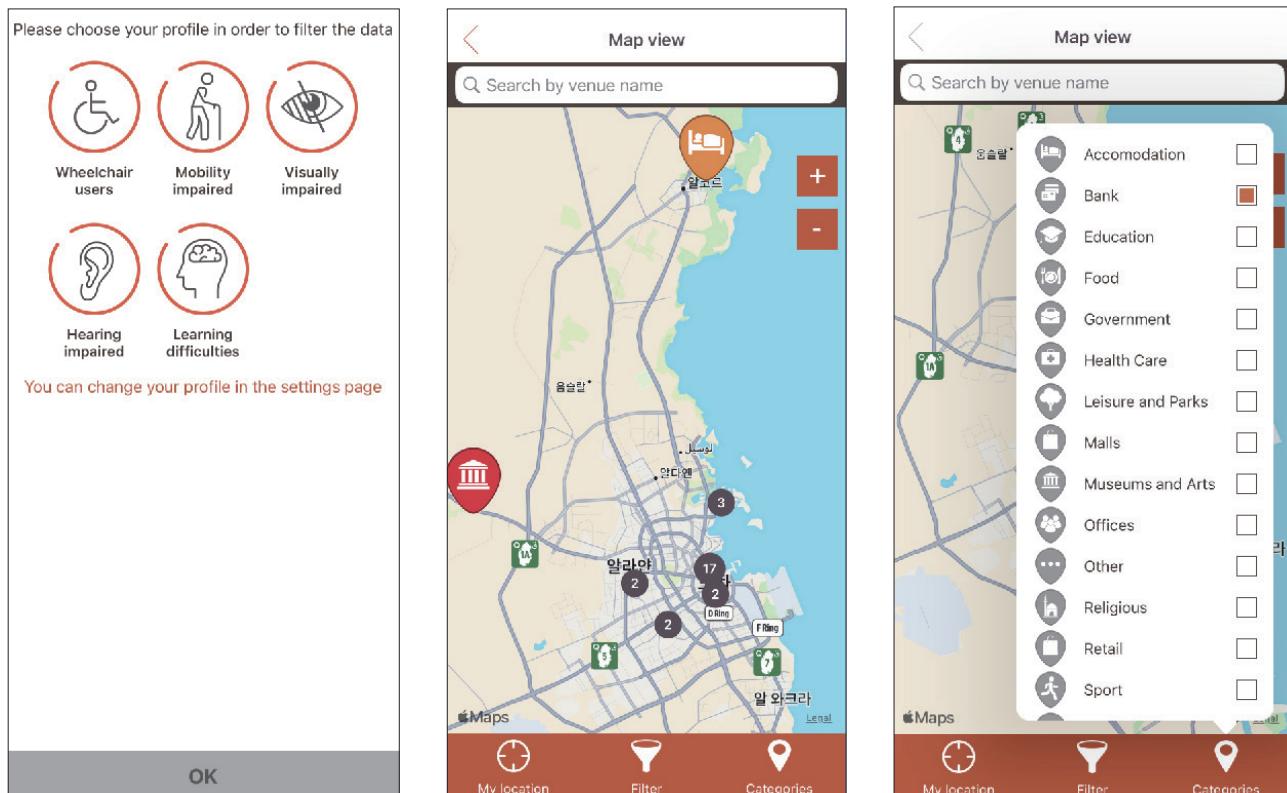


역사상 가장 접근성 높은 월드컵

세계의 이목이 향했던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은 할리우드 배우 모건 프리먼과 함께 등장한 장애인 청년의 무대로도 화제를 모았다. 하반신이 없는 꼬리퇴행증후군을 앓는 가수 알 무프타는 축구, 수영, 등산까지 온갖 스포츠에 도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희망을 전해 온 카타르의 유명 인사다.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최연소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선 인류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카타르 정부는 2022 FIFA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장애인과 약자가 월드컵을 충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월드컵 역사상 가장 접근성 높은 행사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카타르 월드컵 준비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의 디지털 접근 수단에서부터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구현하고자 했다.

‘Accessible Qatar’는 장애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장애인 관광객에게 큰 편의를 제공했다. ‘Accessible Qatar’ 앱은 카타르 전역의 공공장소 및 관광지의 위치를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접근성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숙소, 은행, 음식점, 의료시설, 공원, 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을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기 수월한 곳만 따로 보여주는 기능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했다. 전문가와 실사용자의 리뷰도 확인할 수 있어 장애인이 실제로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을 위한 여행 안내 앱 ‘Accessible Qatar’



카타르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 디지털 접근성 개선

카타르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확대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0년에는 1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디지털 접근 권리 평가 지수 조사(DARE INDEX 2020)에서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카타르는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을 최초로 비준한 나라들 중 하나다. 이후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발표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2014년에는 노동부에 고령자와 장애인 전담 부서를 신설해 고용정책과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카타르는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의 전체 일자리 중 2%를 장애인 고용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의료위원회에서 장애인 무료 건강보험 정책을 시행하고 장애인의 건강, 사회참여, 가족 문제를 조사해 대응하고 있다.

카타르에서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엄벌을 받을 수 있다. 카타르 정부는 재활, 고용, 교육과 직업훈련, 교통, 의료, 사회복지, 공공시설 이용, 재정지원과 같은 영역 전반에 걸쳐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보조공학기술센터

카타르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은 교통부와 보조공학기술센터인 MADA이다. 교통부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전략을 시작했다. MADA는 카타르의 장애인 및 노약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 기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0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MADA는 카타르 중앙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도심 곳곳에 접근가능한(Accessible) ATM 기기를 설치해 장애인과 노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접근가능한 ATM기기는 스크린 항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리더 기능, 적절한 명암 비율을 지원하는 화면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MADA는 또한 공공기관과 박물관 등에도 혁신적인 배리어프리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약자가 관공서에서 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접근가능한 키오스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품 관람 지원 서비스 제품을 카타르 전역에 보급 중이다.

3D 아랍어 수어통역사의 활약

MADA는 국제표준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컨설팅 서비스와 인증을 제공한다. 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기관들이 MADA의 웹 접근성 컨설팅, 인증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아랍어로 정보통신 콘텐츠와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그 성과물 보급에 힘써 왔다.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웹 접근성 지침을 아랍어 버전으로 바꿔 아랍어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3D 아랍어 수어통역사 'Bu Hamad'를 개발해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수어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 수어통역사를 촬영해 3D 수어통역사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포함돼 있어 홈페이지 내용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빠르게 수어를 지원한다. 가상의 아랍어 수어통역사는 카타르 월드컵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활용했다. 공식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명암 변경 옵션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장애인 전용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 운영됐다.

카타르에서는 도심에 있는 수어안내센터가 청각장애인의 도움 요청에 상시 대응한다. 청각장애인의 은행 업무나 쇼핑 등 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동행하며 서비스 이용은 무료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지만 단지 GDP가 높은 나라라서 가능한 정책인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The image features a 3D rendering of a man in traditional Qatari white clothing (ghutra and agal) standing against a dark teal background. He is pointing towards his chest with his right hand. To his right, there is a yellow banner with Arabic text and English subtitles. The Arabic text reads "أول مترجم قطري افتراضي ثلاثي الأبعاد للغة الإشارة القطرية" and "اطلاق Launching". Below this, in English, it says "The First Qatari Virtual 3D Interpreter for Qatari Sign Language". The background also includes icons of a globe, a plane, and a map of Qatar.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아랍어 수어통역사 'Bu Hamad' / 사진. MADA



공감, 함께하다 | 트렌드 보고서

나를 죽인
가문의 핏줄로
다시 태어나다



드라마 1.5배속으로 보기, 메시지보다 중요한 욕망의 실현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 보는 OTT 서비스는 콘텐츠 이용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용자는 보고 싶은 장면을 선택하고, 더 빨리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재생속도를 높인다.
작품의 미학이나 메시지보다 서사를 중시하고, 욕망 충족을 콘텐츠의 미덕으로 여긴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결말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그 경향과 어긋났기 때문 아니었을까.

글 편집부

〈재벌집 막내아들〉의 결말에 분노한 사람들

〈재벌집 막내아들〉은 2022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다. 재벌 일가에 충성하다가 배신당해 살해된 주인공 윤현우가 재벌가 막내 진도준으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사는 내용을 그렸다. 윤현우의 기억을 그대로 가진 진도준은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기에 계속 투자에 성공하며 그룹 내 자기 지분을 늘린다.

드라마는 시청자가 익히 아는 역사적 사건들을 마치 〈응답하라 1997〉 시리즈처럼 적재적소에 선보이며 재미를 선사했다. 탐욕스러운 재벌가 자녀들이 그룹 총수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지만, 그들이 당연히 가졌다고 여기는 것을 주인공이 하나하나 빼앗는 과정도 통쾌했다. 이제 주인공이 그룹 지주회사의 최대 지분을 차지하고 회장에 등극하는 클라이맥스만 남았는데, 드라마는 다른 결말을 선택했다. 허무하다는 소감이 쏟아졌고, 많은 사람이 화를 냈다.

실망하는 사람들은 결말의 개연성을 지적했다. 드라마는 전개되는 내내 여러 허점을 노출했는데 부족한 개연성이 마지막에 극대화됐다는 지적이었다. 개연성이 부족한 것만 문제가 아니었다. 알고 보니 주인공 윤현우가 과거에 죄를 지었고 결국 그룹 회장이 되지 못한 채 죄를 참회한다는 마무리는 주인공의 성공을 응원하던 시청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부의 선망이 ‘사이다’로 포장될 때

마지막회의 갑작스러운 반전은 자연스럽지도 않았고 시청자가 기대한 사이다를 주지도 못했다. 그러나 시청자가 기대한 결말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좀 더 따져 볼 문제다. 주인공은 재벌가의 탐욕에 희생된 피해자였고, 피해자가 복수를 꿈꾸는 것은 정당하게 여겨졌다. 주인공의 복수라는 서사에 집중하면 주인공이 그룹을 차지하는 것은 정당해 보인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 서민 출신 피해자라는 점을 배제하고 보면, 그 역시 재벌가의 일원이다. 기업 경영 능력을 입증한 적 없이 물려받은 종잣돈을 늘려 부를 형성한 똑똑한 인물일 뿐이다.

드라마는 재벌가가 부의 상속을 넘어 경영권까지 세습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질문했지만, 스쳐 지나간 장면 중 하나 일 뿐이었다.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담아내지 못한 드라마의 완성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서 시청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의무가 없는 것일까.

드라마를 1.5배속으로 보면 감상의 초점이 달라진다. 영상미나 음악은 스쳐 지나가고 장면이나 대사 사이 행간을 읽을 시간이 없어진다. 시청자는 의미를 곱씹기보다 빠른 이야기 전개와 사이다 결말을 기다리게 된다. 모든 시청자가 드라마를 1.5배속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드라마의 메시지나 미학보다 빠른 전개와 욕망 충족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빠른 전개와 사이다는 이제 작품의 흥행을 위한 필수 요소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그 요소를 활용해 인기를 얻었고, 이 드라마의 시청자가 원한 사이다는 주인공이 완벽하게 부와 지위를 얻는 것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부의 선망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미디어는 그 적나라한 욕망을 ‘쿨’하다고 포장한다. 〈재벌집 막내아들〉도 그 욕망을 자극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정당하냐고 질문하며 마지막 욕망 실현을 거부했다. 결말의 어설픈 반전에 화가 나면서도 마냥 화만 내기는 머뭇거려지는 이유다.



인천 차이나타운 미식 여행

인천 차이나타운은 수도권에서 가까우면서도 이국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다양한 종류의 자장면과 중국 전통이 담긴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먹는 여행의 재미를 만끽하기에도 그만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떠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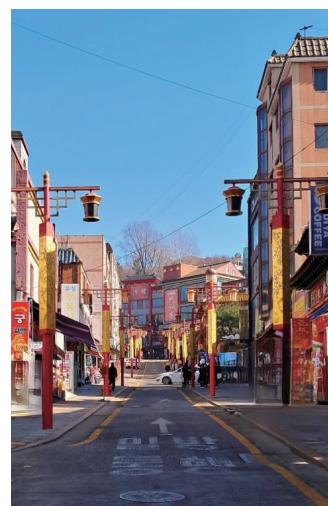
글·사진 문화진 여행 칼럼니스트

화려하고 응장한 중국식 대문, 패루

패루는 붉은 기둥 위에 지붕을 얹은 중국식 전통 대문이다. 중국인은 기념할 일이 있을 때 마을 입구에 패루를 세웠다.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이자 중국문화의 상징과도 같이 의미 있는 구조물로 여겨진다.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총 4개의 패루가 세워져 있어 각각의 모양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다. 특히 인천역 바로 앞의 제1 패루인 ‘중화가’를 지나면 우리 가흔히 떠올리는 차이나타운만의 풍경, 중국풍 거리가 나타난다. 일부 경사진 구간도 있어서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동행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차이나타운 미식여행의 출발지,
인천역



제1패루를 지나 차이나타운으로
진입하는 길

100년 역사의 자장면

차이나타운에서는 특별한 자장면을 맛볼 수 있다. 조미료가 없던 시절부터 중국 전통 재래장만을 이용해 만들어 먹던 자장면이다. 백년자장 혹은 하얀 자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맛이 은근히 담백하고 새롭다. 연경대반점, 만다복 등 몇몇 전통 중국음식점들은 입구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다. 잠시 들러 중국 전통의 분위기를 느끼며 허기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차이나타운의 개별 음식점들 대부분이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휠체어 이용자는 인천역이나 개항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다복의 백년자장

지나칠 수 없는 길거리 음식들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많고 유명한 것을 꼽으라면 중국음식점과 나란히 길거리 음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의 길거리 음식은 종류와 맛이 다양하다. 화덕에 구운 화덕만두, 중국 전통 월병, 속이 텅 빈 공갈빵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 간식거리다. 알록달록한 과일에 설탕물을 입힌 탕후루 역시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화덕에 만두를 굽는 모습과 여러 가지 길거리 음식들

개항기의 모습을 간직한 인천아트플랫폼

길거리 음식까지 아무지게 먹었다면 느긋하게 거리를 둘러보자. 차이나타운의 큰길을 따라 조금 이동하면 개항 이후 근대 건축문화재가 잘 보존된 구역이 있다. 바로 인천아트플랫폼이다. 일대가 대부분 평지라 휠체어의 이동도 편리하고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인천아트플랫폼은 등록 문화재인 구 일본우선주식회사를 비롯해 개항기 이후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곳이다. 창작스튜디오, 전시장, 공연장, 인천생활문화센터 등의 현대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대극을 촬영하는 장소로도 쓰이니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인생샷’을 남겨볼 수도 있다.

알쏭달쏭 직장생활

“회사가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직장이란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면서도 온갖 고민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라서 직장에서 더 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한 고민, 고충이 있으신가요?
[장애인과 일터]가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합니다.

* 2월호에는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사례집> 수록 내용을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장애인과 일터]에 직장생활의 크고 작은 고민 내용을 보내주세요. 내용이 소개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익명 참여’라고 적으시면 익명의 독자로 사연을 소개합니다. 단, 보내시는 내용 하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보내실 곳 jangteo@kead.or.kr



Q. 중증 지체장애인입니다. 피부관리사로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은데 병원은 인력 충원을 미뤘고, 저는 연장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도 포기하며 일했습니다. 퇴사 시기와 실업급여 신청을 논의하던 중 몸이 너무 아파 갑자기 그만뒀는데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 시간 외 근무, 휴게시간 단축 등 병원 상황을 고려해 많이 양보하며 애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는데도 무단퇴사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는 병원에 어이없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실 만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 병원으로서는 당황스럽긴 하겠습니다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도 한참 더 근무했다는 점을 생각해야겠지요. 근로자가 일이 힘들어 질환이 심해지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원장도 인정하기에 실업급여 신청에 동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시기를 논의했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도 있으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무단퇴사라고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손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입증돼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통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만큼 몸에 무리가 왔다면 그 경위를 입증할 진단서(상병명) 등을 확보해 산재 신청(또는 산재초과 손해 소송)을 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Q. 경증 지체장애인으로 입사하고 지적장애 판정 후 중증장애인으로 10년, 총 20여 년을 일했습니다. 병가로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저와 손발이 안 맞아 같이 일하기 싫어한다면서요. 장애인과는 같이 일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A. 20여 년간 일했던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라 일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나이가 많은데 다른 직장을 찾아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신 분은 취업 당시 이미 장애가 있었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애가 더해지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어졌는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사 소견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라는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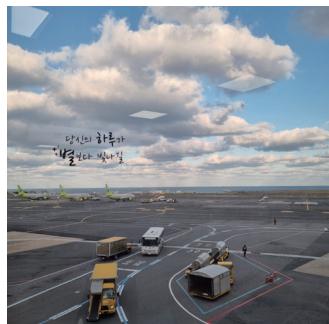
Q. 70대 뇌병변장애인이며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입주민 대표가 저를 수시로 괴롭힙니다. 건물 계단에 불법 적재물을 뒀서 치워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다가 시정요청서를 보냈는데 그 후로 사사건건 딴지를 겁니다. 제가 속한 용역업체에 저를 그만두게 하라고도 했습니다.

A. 불법 적재물로 다른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한 사람이 누가 봐도 잘못입니다. 관리소장으로서 시정을 요구한 것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지요. 세상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양심을 품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운하게 그런 사람을 만난 셈인데요. 억울하시겠지만 좀 더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문의하신 내용 외에 다른 언행이 없었다면 장애인 차별로 볼 여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상대와 직접 대립하기보다는 용역업체 대표(사업주)에게 고충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무지를 옮기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식의 대응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용역업체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 고용노동청 산재예방과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이런경험 #이런생각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독자가 발견하는 반짝거리는 순간과 경험, 사연을 소개합니다.

'#공감태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상,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 등을 사진에 담아 jangteo@kead.or.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진이 소개된 분께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 #바쁠수록여유롭게 #스스로찾는행복 #별보다빛나는하루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 가는 길에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글귀가 마음에 들어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좋은 날씨와 글귀는 잠시 행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들이 쌓여 빛나는 하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별보다 빛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유정 대리, 공단 제주지사



#밀양여행 #위양지연못 #산책하기좋은날 #흙길걷기

지난 주말에 고향인 밀양에 내려가 위양지 연못을 산책했습니다. 요즘 흙길을 걸을 일이 많지 않은데 흙으로 다져진 둘레길이 반가웠어요. 수면에 나무들이 비친 모습이 아름답고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복잡한 일상을 잠시 잊고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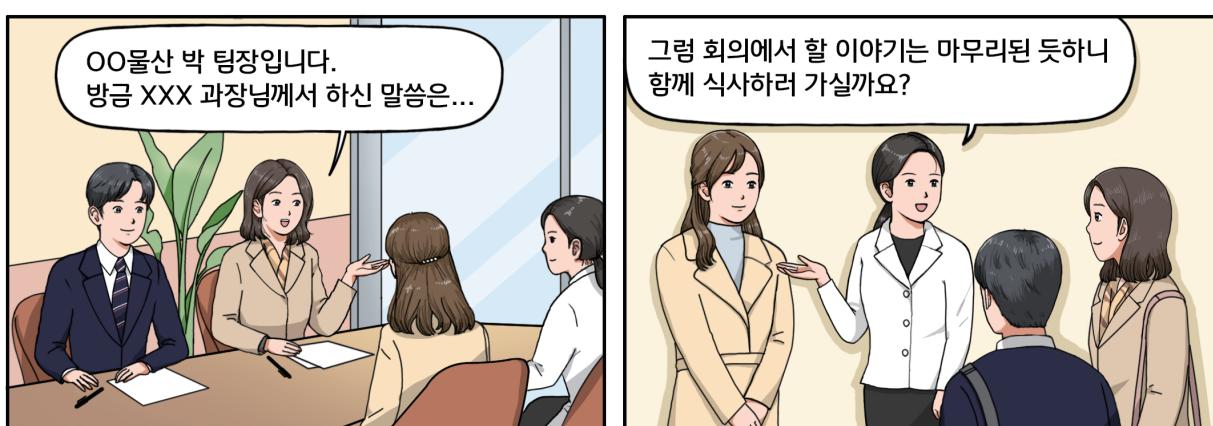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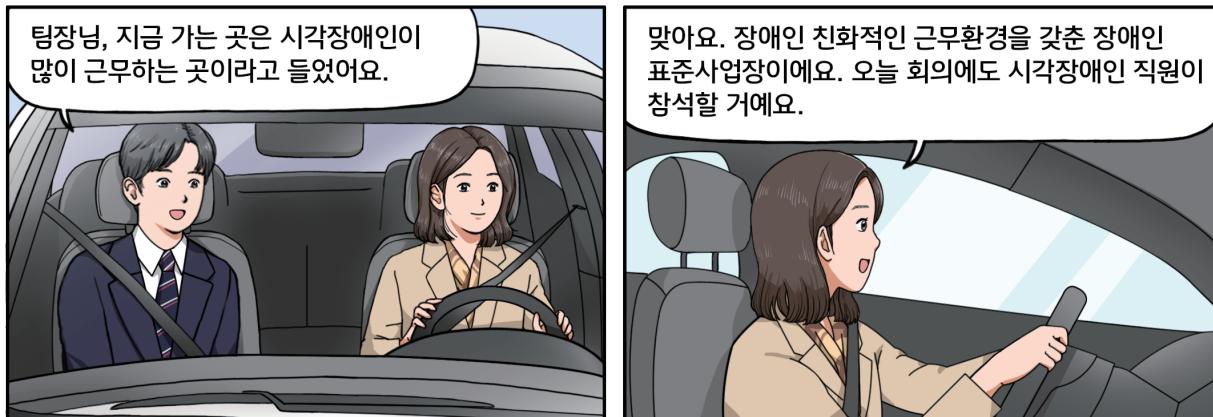
우윤숙



#내동생사랑해 #자주산책하고 #더세계안아주고 #더많이함께할래요

어느새 12년을 함께한 저의 사랑스러운 동생 테리입니다.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순진했던 기대와는 달리 심장이 좋지 않아 오래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실에 충격 받은 것도 잠시, 이제는 소홀했던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산책도 자주 가고, 더 세계 안아줍니다. 그날이 와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요.

이지우 과장, 공단 소통협력실





KEAD 뉴스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 합동훈련 입촌식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 합동훈련 입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메스(Metz)에서 열리는 대회의 출전 선수단장, 국가대표 선수, 기술위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입촌식은 대회 참가를 앞두고 합동훈련을 시작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종합우승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각자 소속된 장소에서 훈련해 왔으며(소속훈련),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능경기대회 전문훈련장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2023년 지원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로,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32명 이하 사업체는 1명, 33명 이상 49명 이하 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특히 2023년 이후 신규 고용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최대 1,8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 (www.l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표전화(1588-1519)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600개 돌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2022년 12월 기준 전국 600개소를 돌파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1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 대상 포함 이후 경영안정을 보장받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838억 원에서 2021년 기준 5,930억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은 2013년 인증제도 도입 당시 140개소, 장애인 근로자 3,915명에서 2022년 12월 현재 609개소, 1만 3,367명으로 성장했다. 공단은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 및 이커머스 분야 주요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신정부 정책과제에 발맞춘 IT 관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KEAD SNS 하이라이트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좋아요 싶어요 공유 오프라인저장 저작

[가치 만나러 가요] 느티나무의 사랑
 '가치 만나러 가요'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젝트입니다.
 개그맨 김기열 씨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양산의 핫플,
 '느티나무의 사랑' 카페로 떠납니다.

Home Play + Next Previous



haha_kead

음료? 음료? 음료? 음료!

음유도 음료, 콜라도 음료, 주스도 음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음기 겉면에 표시돼 있지만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음료'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Home Search + Heart Profile





blog.naver.com/lead1

발달장애인의 당당히 공연을 즐길 권리
 연말연시에 공연을 즐기는 많은 사람 속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는 극장을 찾더라도
 주위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전문가 필진의 경험과 고민에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내일내일 KEAD

전문가 필진
 발달장애인의 당당히 공연을 즐길 권리

Heart Comment Shar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6시간 ·

장애인의 웃기 불편한 진실 - 유니버설 패션
 웃자음을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 여기고 즐기는 사람이 많지만,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일까요?
 KEAD 내꿈내일기자단 9기가 취재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장애인이 겪는 웃기 불편한 진실
 유니버설 패션

Like Comment Share

Home Friends Watch Profile Notifications More

